

똑! 똑!

인화여고는 대지가 43,912m²(13,306평)이고 운동장 넓이만 해도 22,699m²(6,878평)인 매우 넓은 교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9년 7월이면 옛 동인천고등학교 건물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공원이 들어서서 학교 전체가 휴양지와 같이 넓고 아름다운 학교 공원이 된다. 학교가 기존의 학교 모습으로 국한되지 않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면서 학생들에게 더 없는 학습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깨끗한 교정... 그리고 도약

인화여자고등학교(교장 변종섭. www.inhwa.hs.kr) 학교 탐방

학생 중심 시설...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 앞두고 준비 한창 '대화하는 학교' '친근한 학교' 이미지 구축



새롭게 변하고 있는 인화여자고등학교 전경.



조경공사가 한창인 학교 전경.

리모델링과 신축공사로 한창 분주한 학교, 조금씩 갖춰지는 모습이 쾌적함으로 다가왔다. 인천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인화여자고등학교' (교장 변종섭. 60)는 현재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특히,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인화여고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같이 뛰고 있다.

인화여고의 최고의 변화는 '교과교실제' 운영.

'교과교실제'는 과목별로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게 되는 수업방법으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진형 수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학생들이 각 교과목의 특성이 드러나는 교실에서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질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교실에 상주하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대화와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본연에 충실한 학교의 모습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대부분, 일본 등의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 한 가람고, 공항중 등 33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인화여고가 선도적인 입장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교육 이래 활발한 활동으로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예도 있다.

과목분야가 그렇다. 학생 스스로가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열린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실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꾸준한 관심과 실천의 결과는 인천과학문화 축제 교육감상(2008), 인천대 학생상(2007), 인천학생과학 실험대회 물리금상(2008) 대한민국창의력대회 장려상(2008), 전국과학탐구대회 동상(2008), 한국청소년물리토너먼트대회 동상(2009), 인천

광역시 과학경시대회 화학부 문 동상 등의 확실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무학년제로 운영된다는 점은 특색이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 소질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논술 기초, 중급, 실전 등 5개 강좌와 함께 수학, 영어, 영어회화 등 12개 프로그램에 자유로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청에 등록된 인력풀제에 의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강좌를 개설하며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의 자유수강권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해 English Camp 및 회화캠프를 열어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 신장에 기여를 꾀하고 있다.

또한, 영자신문 동아리를 조직해 일년에 두 번 교내 영자신문인 "Inhwa Herald"를 발간해 인천시내 전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이 학교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 요구하지 않는다.

1985년 창단 이래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입상하는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인화여고의 카누부는 2007년 전국체육대회, 전국카누 선수권, 출전한 모든 국내대회를 석권한 물론이요, 제12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여자 주니어 부분 k-1 경기 15km에서 1위, 1,000m 2위, 500m 3위, k-4 500m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진 학생은 고등학생으로서 유일하게 국가대표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수영부도 전국체전 및 한리배에서 입상하는 등의 두루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 3월 부임한 변종섭 교장의 경영관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다. 교사들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젊어서의 귀한 시간을 잘 배우고 익혀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뛰어난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학교의 모토다.

학교의 최근의 변화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 교사와 학생의 복지를 갖추고 지원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송(17. 2학년) 학생은 학교의 장점을 면학 분위기의 쾌적함을 제일 먼저 들었다.

특히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 학교가 가진 최고의 자랑이라고 설명명했다.

또한, 2학년 학생회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성은(17) 학생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금년에 입학한 조은주(16) 학생은 "아름다운 교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드는 것 같다"며 "학교 이미지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

2009년 본관 건물의 이전과 함께 전교생의 효율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책걸상으로 전면 교체했다.

동시에 허리까지 오는 넓고 깊은 개인용 사물함, 자동 환풍기,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깨끗한 화장실 등 학생을 위한 배려로 가득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투자라면 그야말로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표현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다.

사실독서실에 있을 법한 개인용 책상은 면학실 가득 들어차 있고 과학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일궈내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교 실험실 수준의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나아가 2학기부터 개방하는 최첨단 도서관 '글마루'와 깨끗하고 넓은 공간에 최신 방송장비를 갖춘 시청각실과 방송

실, 장애우를 위한 학습도움실 등이 모두가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시설과 환경에 단순 금전적 투자 이상의 세심한 배려를 곳곳에 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학생 중심의 축제 '목련제'

학생회 중심의 축제인 목련제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축제를 통해 내보이는 장으로 각종 동아리 중심의 활동물을 전시, 공연, 발표, 시연 등 다양한 축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부하느라 지친 심신을 축제를 통해 회복하고 동아리 별로 축제 기획안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정신, 배려하는 마음, 이루어가는 기쁨 등을 누리고 있다.

지역주민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학교 시설 및 자원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특수학급 시설로 있는 제과 제빵, 원어 민을 활용한 영어회화, 킷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가 선용 및 평생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김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송(右) 2학년학생부회장 양성은(左) 1학년학생부회장 조은주(中) 학생